



오미자·구기자와 함께 약용 열매 '3대 천왕' 전국 생산량 70% 차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유기산·배당체·비타민A 함유 간·신장·방광 기능 보호



지난해 말 구례군 첫 '국가공인 치유농업사'가 된 강승호(60) '지리산과 하나되기' 대표는 말 그대로 지리산 정기(精氣)와 하나되기 위해 산수유 농사를 택했다. 지난 2010년 구례에 자리 잡은 그는 산동면 위안리에서 3306㎡(1000평) 규모 산수유 농장을 가꾸고 있다.

산수유는 해발이 높을수록, 나무 수령이 오래될수록, 계곡을 끼고 자라야 과피가 두꺼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강 대표가 '지리산 서리맞은 산수유' 재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한겨울 눈 속에서 영하 20도의 날씨를 버티내고 응달에서 말린 산수유를 가장 좋은 품질로 친다.

강 대표는 무농약 약용으로 인증받은 유기농 산수유만을 키워낸다. 대표 상품으로는 유기농 건산수유와 유기농 발효 산수유 진액, 산수유 꿀 등 '유기농 3종' 식품이 있다. 5년 전에는 현대백화점이 80여 식품장인을 엄선한 식품관 '명인명존'에 이름을 올려 전국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어 산수유청을 담그거나 바삭한 크런치 과자와 발효 빵, 슬빵, 초콜릿을 만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새롭힌 산수유 드레싱 맛이 일품인 '지리산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이 나왔고, 서울 양재동 매한시미의 숲 인근 카페에서도 톡 쏘는 산수유



산수유진액

지리산 서리맞은 빠알간 '구례 산수유' 셋노란 봄 풍경이 기대된다

에이드를 맛볼 수 있다.

오미자, 구기자와 함께 약용 열매의 '3대 천왕'으로 불리는 산수유는 구례에서 다양한 식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구례 햅쌀과 지리산 청정 암반수로 빚은 '산수유 막걸리'와 발효 약주인 '산수유술', 산수유 환, 산수유장어환, 산수유젤, 산수유발효차 등 가짓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구례 산수유는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3월이면 284.2ha에 12만주의 산수유나무가 구례 곳곳을 노랗게 물들인다.

구례 농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산수유농업은 지난 2014년 6월 국가중요농업유산(제3호)으로 지정됐다. 앞서 200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기 시작했고, 구례군은 2011년 산수유산업특구로 선정됐다.

구례지역 전체 농가 4074가구 가운데 4가구 중 1가구꼴(23.1%)인 940가구가 산수유나무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건피 162t을 생산해 28억8100만

원 매출액을 올렸다.

구례에서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산동면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수유 주산지이다. 전체 면적 1만130ha의 82.8%에 달하는 8390ha가 임야로 구성돼 있다. 경작지가 부족한 산간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수유를 재배한 것이 '국내 최대 산수유 군락지'로 성장한 발단이 됐다. 평지와 산지의 지형을 모두 담은 선상지와 구릉지는 산수유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구례 산동 산골 마을 주민들의 애환은 문태준의 시 '산수유나무의 농사'에 담겼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떨어지면 벌써 노란 줄칼 다쳐서 무거운 그늘이다'

구례 산수유는 전국 팔도 약재상들이 탐내는 약용 열매다.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붉은 열매 산수유는 유기산과 배당체, 비타민A 등을 함유하고 있다. 예로부터 간과 신장 기능을 좋

게 하고 방광 기능 보호, 여성 질환에 좋은 열매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달콤맛과 신맛이 나는 열매는 여름철에는 탈진을 예방하고 신체기능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효능도 갖고 있다.

구례 산동면 이름은 오래된 전설에서 비롯된다. 1000여 년 전, 중국 산동성 처녀가 지리산으로 시집오면서 산수유나무를 가져와 심었다는 이야기가 예로부터 전해져왔다.

산동면 계척마을에는 수령 1000년 된 산수유 시목(始木)이 있다. 국내 산수유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나무는 높이 7m, 둘레 4.8m. 여기에서 구례를 비롯해 전국 각지로 산수유나무가 보급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시목을 '할머니 나무', 동쪽 원탈리 달전마을에 있는 산수유 고목을 '할아버지 나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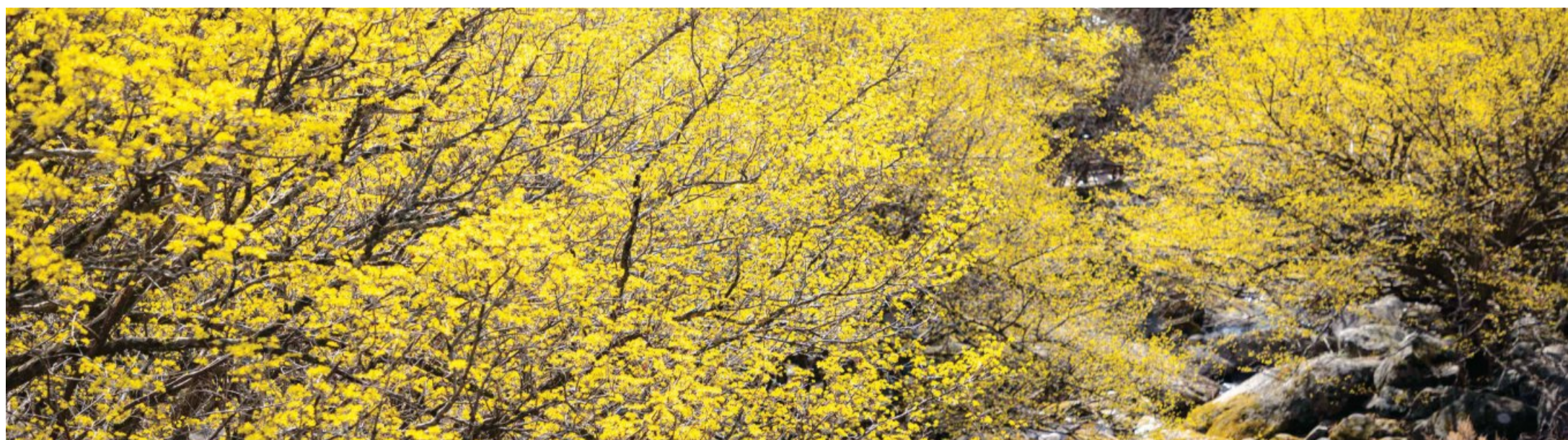
지난 2020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종자은행인 '시드 볼트'(Seed Vault)에 구례군 산동면 계척마을 산수유 시목 종자를 영구 저장했다.

주민들은 해마다 '할머니 나무' 앞에 모여 풍년제를 지내고 있다. '할머니 나무' 외에도 1979그루의 산수유나무가 구례에서 100년 넘게 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에 있는 '산수유 문화관'



구례 산수유꽃 축제, 4년 만에 열린다

봄꽃 가운데 가장 먼저 피는 것으로 알려진 산수유꽃이 다음 달 구례 산골 마을 곳곳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전국 상춘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구례 산수유꽃 축제'가 오는 3월11일부터 19일까지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와 산수유 군락지 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다.

'영원 불변의 사랑'을 담은 산수유 꽃말과 어울리게 축제 주제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로 정했다. 구례군은 축제 기간 공연과 체험, 판매전 등 40여 개 행사를 알차게 마련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인파

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해 교통과 안전 대책에 중점을 뒀다.

본격적인 축제 행사는 개막일 오후 6시부터 열린다. 개막 공연에는 TV 경연 '미스터트롯'으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출연한다. 구례 출신으로, TV 경연 '조선판스타'에서 우승을 거둔 가수 김산옥과 트로트 가수 박해신, 구례 대표 가수 이정옥도 같은 무대에 오른다.

식전 공연에서는 구례 합창단과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산수유 대표 노래인 '구례의 산수유'를 부른다. 지난해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호남여성농악'의 흥겨운 무대도 이어진다.

이외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획하고 펼치는 '우리동네 버스커' 공연과 '렛츠디스코', 국가무형문화재 농악공연 등도 관객을 만난다.

구례를 찾은 어린이 가족 방문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키즈데이'와 '휴 쉼터' 등도 조성했다. 어린이 관객을 위한 마술 공연과 비눗방울 놀이 등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이번 산수유꽃 축제의 대표 체험 행사로는 '산수유 열매까지 대회'가 있다. 산수유 씨와 과육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우수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준다.

행사 기간 진행되는 '산수유꽃길 걷기'는 모두 3개 주제로 구성했다. 가족이 함께 걷기 좋은 '산수

3월11일~19일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
산수유 군락지 마을 일원
'우리동네 버스커' '농악공연'
가수 장민호·김산옥 등 무대

유페밀리워'와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하지는 취지의 '산수유꽃길-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무장애 걷기 길로 마련한 '러브앤힐링로드' 등이 있다.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한 걷기 도전 행사와 주변 관광지를 둘러 도장을 찍어오면 기념품을 주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4년 동안 축제를 기다려온 관광객들을 위해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화염사 흥매화, 구례300리 벚꽃, 섬진강 갯꽃 등 봄철 내내 우리 지역 꽃길을 걸으면서 구례의 봄 정취를 만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산수유꽃 축제에 이어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서시천체육공원과 300리 벚꽃길에서 오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간 개최해 '봄꽃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